



창단 62주년 KBS교향악단 박희성 사장 아름다운 하모니로 들려주는 교향악의 이상(理想)

한국 교향악단과 최초로 협연하는 연주자들, 넓은 스펙트럼의 레퍼토리로 기대 모아

지난 2017년 1월 13일, 박희성 사장이 재단법인 KBS교향악단의 새로운 수장으로 선임되었다. 약 1년이 조금 넘게 지난 현재,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리고 2018년도 어떤 행보를 펼칠지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박희성 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선임된 이후,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

“제가 선임되었을 당시, 생각보다 조직이 많이 어려웠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사무국 직원들과 단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습 중 쉬고 있는 단원들과 오후에 지친 직원들을 위해 맛있는 간식을 마련하며 대화하였고, 연습이 끝나고 돌아가는 단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짐승이린 격려를 건네는 등 소품을 위한 노력을 행해왔습니다. 1년간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지고 좋아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KBS교향악단에 소속되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아무래도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입니다. KBS교향악단은 올해 62주년을 맞이했는데

요, 이제껏 정기연주회 위주로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는 ‘국민의 오케스트라’로써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정기연주회 외에 찾아가는 음악회, 기획연주, 특별연주, 클로버 나눔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창단 62년을 맞은 KBS교향악단의 2018 시즌 특징은?

“탄탄한 연주력과 음악성을 갖춘 본 교향악단은 이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매해 유수한 국내외 연주자들과 함께 깊이 있는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피아니스트 엘렌 그리모, 클래식 아카펠라 그룹 스윙글 싱어즈, 트럼페터 티네 텅 헬세트 등 한국 교향악단과는 최초로 협연하는 연주자들과 환상적인 콜라보를 선보일 것이고요, 더불어 음악감독 요엘 레비 외에 정명훈, 타다야키 오토카, 알렉산더 라자레프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지휘자와의 만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퍼토리 또한 흥미를 끄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이든과 모차르트, 베토벤 등 고전주의 레퍼토리에서부터 브람스와 바그너, 말러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등 낭만

주의 음악을 거쳐 20세기의 버르토크와 베리온, 브리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음악세계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KBS교향악단의 단단한 내실과 새로운 시도

“우선 4년 전에 중단하였던 실내악 시리즈를 올해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상·하반기에 각각 2번씩 기획되어 있어 KBS교향악단 단원들이 꾸미는 아름다운 실내악의 향연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에 이어 여수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문화활성화 및 기여의 목적으로 시도하였던 여수음악제입니다. 작년 여수음악제에는 특히 학생들을 위한 마스터클래스를 1회성이 아닌 4~5개월 동안 꾸준히 시행하였고, 폐막식 때 단원들과의 합동공연을 성황리에 이뤄내었는데, 함께 연주한 단원들과 학생들, 그리고 지켜보는 관객들과 관계자들 모두 감동을 받았고, 이 과정이 쉽지 않은 임지만 참 보람되었다는 후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올해에도 8월 30일(목)부터 9월 2일(일)까지 4일간 여수시와 여수상공회의소와 함께 주최하여 세계적인 연주자 및 여수지역의 음악인들과 함께하는 무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코 및 슬로바키아 건국 100주

년 기념에 KBS교향악단이 초청되었습니다. 이에 11월 말 체코 프라하(프라하 페스티벌), 체코 즐린,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총 3곳에서 연주할 예정으로 한국 오케스트라의 위상을 높이고 올 것입니다.”

행형색채를 품은 Black, KBS교향악단

박희성 사장은 KBS교향악단을 ‘Black(검은)’색채에 비유하였다. 색 자체에서 주는 무게감과 더불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남을 세워주는 Black, 물감놀이로 하다 보면 여러 색들을 다 섞게 되면 결국 검은색이 나온다. 이처럼 모든 색을 품고 있는 검은색처럼 KBS교향악단에는 행형색채의 검은색을 색채들이 담겨있는데, 이들의 분연의 색을 꺼내주는 것, 박희성 사장은 이것이 바로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터라, 아직까지도 외부에서는 그때의 모습으로 KBS교향악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도약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께 관심과 더불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선뉴스 기자/musicnews@musiced.co.kr)

YAMAHA 그랜드 피아노 전문점

야마하 중고(일본현지 직수입) 그랜드피아노 특별전시중!

패어구매고객을 위한 장기분할구매 프로그램

LOTTE와 함께하는 렌탈 [장기할부] 서비스 단행

12개월~36개월 저렴한 [년4%이내] 장기할부

12회~24개월 무이자 실시!



(주)그랜드 피아노 일선지
WWW.GRANDPIANO.CO.KR
전시장 서울시 서초동 1451-80 2층
TEL : 02-584-5555 / FAX : 02-523-7671
약기사업부 02-584-7878
대표 서상중 010-5351-3396
국가공인 1급 조율사 · 그랜드피아노 제직자

